남구, '제1회 소확행 나눔장터' 물품 판매자 모집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백운광장 일대 활성화를 위해 문화와 공연을 가미한 소확행 나눔장터를 연간 4차례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오는 4월 15일 열리는 제1회 소확행 나눔장터에서 각종 물품을 판매할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

남구에 따르면 소확행 나눔장터는 백운광장 일대를 주민들의 행복문화 공동체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올 한해 4월과 5월, 9월, 10월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제1회 나눔장터는 다음달 15일 오전 11시부터 스트리트 푸드존 일원에서 열리며, 아나바다 물품나눔 및 전시나눔, 정보나눔, 체험나눔, 공연나눔 등 5개 공간으로 채워진다.

남구는 나눔장터 개최를 앞두고 오는 31일까지 일상생활에 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판매할 아나바다 물품나눔 참가자를 모집한다.

주민 누구나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참가자의 경우 반드시 부모와 함께 동반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판매자에게는 행사 당일 물품 판매용 부스를 제공한다.

소확행 나눔장터에서 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의류와 장난감, 신발, 가방, 도서, 소형 가전 등이다.

참가 신청은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배너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뒤 참여 링크(naver.me/5hEALd50) 또는 담당자 이메일(knj3071@korea.kr)로 제출하거나, 남구청 1층 주민행복담당관 사무실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행사 당일 새물품이나 가짜 명품 등을 판매하다 상업적·도덕적 문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며, 판매자 선정 이후 행사일 3일전까지 아무런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향후 소확행 나눔장터에 참여할 수 없다. /정희태 기자

동구, '다함께 동네 한바퀴' 참여자 모집

생활체조·동네 마실 돌기 등…30일까지 접수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주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마을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동구 마을복지. zip' 사업 일환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는 상반기 '다함께 동네 한바퀴'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함께 동네 한바퀴'는 동구의 주요 거점에서 ▲1주일에 2회씩 60분 생활체조 ▲마을 안(內) 걷기 ▲동네 마실 돌기(인문산책길) 등 일상에서 함께하는 생활 운동 분위기 조성을 통해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마을복지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구를 대표하는 걷기 명소 푸른길 공원은 원형광장, 산수문화마당, 동명동 작은 공연장 등 4곳에서 '생활체조와 건강걷기' 참여가 가능하다.

충장22, 동명교회, 단사공원 등 3곳에서는 건강체조와 더불어 주민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동네 마실 돌기가 진행된다.

전문 강사 지도 아래 두암제2근린공원, 학동 천변, 원머리 경로당, 동구문화센터, 용산체육공원 등에서는 저녁시간에 체조 교실을 운영할 예정으로 직장인도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정책과 전화(062-608-2557)로 문의.

임택 구청장은 "가족 또는 이웃과 함께 운동하며 건강과 마을복지 공동체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 되시길 기대한다"면서 "올해 야심차게 준비한 '동구 마을복지. zip'의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서구, 마음안심버스 운영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 및 일상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마음안심버스는 15인승 버스를 개인상담 공간, 스트레스 측정 공간, 휴게공간(맘카페)으로 꾸며, 정신건강 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인력들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총 1천873명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303명이 정신건강 심층 상담을 받았다. 서구는 마음건강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맞춤형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했다.

서구는 올해 3월부터 매월 8회 안심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자살률이 높은 시기인 3~5월까지는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마음이 힘든 지역주민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구는 또한 생활터별로 관내 기업체 및 관공서, 생애주기별로 어르신(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심리지원을 원하는 기관, 단체는 서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350-4196)로 문의하면 된다. /이가영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최근 시민 1천여 명과 함께 탄소중립 광산의 마중물이 될 상생·희망 나무 1만여 주를 심고, 기후변화 대응을 다짐했다. /광산구청 제공

탄소중립 광산 마중물, 상생·희망나무 심어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최근 시민 1천여 명과 함께 탄소중립 광산의 마중물이 될 상생·희망 나무 1만여 주를 심고, 기후변화 대응을 다짐했다.

이날 광산구는 쌍암공원, 월전공원, 장덕공원, 월곡공원, 하남3지구 녹지 5개소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2023년 상생·희망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기후위기 대응, 자연과 상생하는 탄소중립 광산을 목표로 2026년까지 추진하는 '200만 그루 나무 식재' 사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행사에는 공공, 민간, 기업, 단체 등을 아우른 시민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이날 오전부터 각자가 맡은 곳에서 이팝나무, 목련, 철쭉 등을 심었다. 식재한 나무는 1만여 주다. 광산구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시민참여 나무심기, 생활권 도시숲 확충, 가로공간 정원조성, 민간주도 나무심기 등 '시민과 함께 나무심고 가꾸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미래세대에 온전한 자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도시숲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기만 기자

북구,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는 광주시가 주관한 '2022 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억여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세정업무 발전을 위해 광주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지난해 세정업무 실적에 대해 ▲지방세정 ▲지방세 체납 ▲세외수입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이에 북구는 평가항목 전반에 대해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해 이어 올해 종합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북구는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액체납 징수기동반, 전 직원 책임징수제, 세외수입 징수실적 보고회 등 다양한 활동과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세 연구동아리도 운영했다.

특히 경기침체로 생업에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수범시책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한눈에 보는 세무정보 유튜브 영상 제작, 북광주세무서와 세정 서비스 강화 업무협약 등을 통해 주민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주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직원들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납세편의 제공과 재정 확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